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 민 14:20-30

요절: 민 14:30

오늘 공부할 본문은 광야의 회중들에게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했고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던지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민13:31).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에 속는 것은 거짓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믿는 것은 자기 마음이 거짓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살후2:11).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민13:30)고 했지만 백성들은 2명의 소수 의견보다는 10명의 다수 의견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다수를 따라 기우는 경향이 있고 외모를 존중해서 판단합니다. 출애굽기 23:2절,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출23:2). 우리는 판단의 법도를 가지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대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따라 판단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전문가들, 학자들, 정치인들, 법관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핵심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며 말하기를, “...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13:32,33)고 했습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거부하고 불신했지만 악한 보고를 들을 때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믿었습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군대요, 주를 믿는 신자들이었지만 위기 상황이 되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나 진실을 믿기보다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이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의 말씀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훨씬 더 강하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 진노하시고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가나안 땅이란 상속 유업은 믿

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 보상, 유업, 상급, 영광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광야에서 헤매기만 할 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과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세상과 대적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광야 생활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우고 이기고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히3:18,19). 구원이 믿음으로 오듯 승리도 믿음으로 옵니다. 출애굽이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이듯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4: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줄을 알게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히4:6).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히4:11). 주님의 책망도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 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민14:11). 그들은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과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20). 주님은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네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는 말씀은 역병으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땅에 있는 모세의 기도에도 따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지(will),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는 분이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요 알지만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19절,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마16:19).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에서 묶고 풀 때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마18:18). 모세의 중보 기도가 정확히 이런 예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20)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요11:42).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항상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아셨습니다. 요한일서 5: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노니라.”(요일5:15).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21).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도 따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께서 “그러나”라고 하신 것은 용서는 했지만

만 그들의 죄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않으며, 죄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21).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뿐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존재, 주의 권능,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주의 영광이 임한 것은 온 세상이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보았습니다(출40:34,35).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은 주의 재림 때입니다. *사11:9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22).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표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기적들은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들은 10번이나 주를 시험했고 격노케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에서 파라오의 추격을 받을 때입니다(출14:11). 두 번째는 마라에서(출15:23,24)에서 물이 없다고 주를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 광야에서 빵이 없다고 불평하며 주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고기 술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출16:3).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굶어죽느니 이집트에서 배불리 죽는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나를 거두고 먹는 법,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 둬으로써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남으로 격노케 한 일입니다(출16:20).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규례를 어김으로써 주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지만 만나를 거두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에도 나가서 거두려 함으로써 주를 격노케 했습니다(출16:28).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느냐?”(출16:28).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과 법규들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출17:2)고 책망했지만 그들은 출애굽 자체를 잘못된 일이라고 후회하며 불평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출17:3). 일곱째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출32). 여덟째는 행군 중에 불평함으로 주께서 들으시고 분노하신 다베라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1:1절,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시라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불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민11:1). 아홉째, 무리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면 울었던 일입니다. 백성들이 탐욕에 빠져,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민11:4-6). 그리고 열 번째 주를 시험한 사건이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들이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는 것을 다 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 불신의 말, 모독하는 말, 욕설 등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입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3절,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 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 보시는도다.”(삼 상 2:3). 주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들을 다 들으셨고 몇 번이나 시험했는지를 다 세어 보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잠언 16:2절,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 보시느니라.”(잠16:2). 주님은 나의 걸음을 세시고 내 죄를 감시하십니다.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욘14:16).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욘31:4).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다 세십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마10:30).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기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주를 시험하고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믿음이 표적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 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뭔가 내 안에 놀라운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보는 것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견지 않고 믿음으로 견집니다. 주께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22) 격노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않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격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2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의 광야를 거닐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나를 격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히4:2).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요3:3).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구원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유업도 상속받지 못합니다(엡5:5).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고전6:9,10).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고전15:50).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들에게 유업의 상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24).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을 특정하시면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라고 하셨습니다. 갈렙이 다른 영을 지녔다는 말은 다른 정탐꾼들, 불평하던 이스라엘 회중들과 다른 영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불신의 영을 지녔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영을 지녔습니다. 회중들은 이 세상의 영, 불순종의 영을 따랐습니다. 갈렙은 순종의 영을 지녔습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양자 삼모시는 영을 받았습시다(롬8:15).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습시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전2:12). 갈렙이 다른 영을 지녔듯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을 지녔습니다. 갈렙이 광야의 회중들과 다른 영을 지녔듯이 영적인 크리스천들은 육신적인 크리스천들과 다른 영을 지녔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모두 같은 믿음, 같은 영,

같은 마음을 지니면 좋겠지만 사실 교회의 성도들만 모여도 같은 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지녔다는 것은 같은데 각 사람이 지닌 영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고전 4:21)고 합니다. 사랑의 영, 온유의 영(갈6:1), 믿음의 영(고후4:13), 지혜와 계시의 영(엡1:17), 권능과 사랑의 건전한 생각의 영(딤후1:7), 진리의 영(요일4:6)이 우리가 지녀야 할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 속박의 영, 세상의 영, 오류의 영은 불신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지닌 영입니다. 갈렙은 확실히 다른 영을 지녔던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께서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을 지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온전히 주를 따랐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좋은 평판’입니다. 믿음은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히11:6). 갈렙이 받은 믿음의 보상은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24). 갈렙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았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서 믿음의 보상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증을 얻게 하느니라.”(히 10:35)고 합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24). 하나님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25). 이 구절은 43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거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올라가면 거기 골짜기에 거하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돌아가라는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번에는 자기들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랐습니다(민14:44). 그 때에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민14:45). 이스라엘은 적을 눈 앞에 두고 울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25)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대신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그들이 경험한 대로 빵도 없고 물도 없고 불 뱀과 전갈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광야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 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신8:15).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빵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향을 돌이켜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광야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가나안 땅이란 목적지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오직 죽음을 기다리는 방황의 길 뿐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26).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광야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광야의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27). 주께서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하십니다. 내게 죄를 짓

는, 내게 반역하는, 내게 불순종하는, 나를 믿지 않는 등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불평하는”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회중의 가장 큰 문제가 불평이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서 자기 회중들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격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입니다. 주께 불평하는 것이나 이웃에게 불평하는 것이나 서로 불평하는 것도 모두 주님이 싫어하시고 노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레19:18).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악한 회중, 불평하는 형제, 불평하는 배우자, 불평하는 자식들 등 불평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10:10절, “또한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고전10:10). 이스라엘은 불평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고, 주께 불평했고, 서로 불평했습니다. 우리 역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약5:9). 주님은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심판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27). 주님은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을 때도 내게 불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라.”(빌2:14)고 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2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28)라고 하셨는데 이런 맹세의 말씀은 아무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28).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민14:2)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주께서 들으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대로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한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란 말씀은 부정의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것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이나 저주의 말, 정죄하는 말 등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한국 속담은 성경적으로도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입니다. 마귀의 말은 가라지입니다. 사람의 말 역시 열매를 맺는 씨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함부로 내 뱀은 불신의 말, 불평의 말에 대해 주께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잠언 18:20,21절에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잠18:20,21)고 합니다. 말로 울무에 걸리고, 말 때문에 화를 당하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인간의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시편 34:13절, “네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네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시34:13). 광야의 백성들은 마음에 담긴 불신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그들을 모두 죽이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잠언 21:23절,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잠21:23).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냅니다. 베드로전서 3: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벧전3:10).

29절입니다.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스무 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29). 심판의 말씀입니다. 불신과 불평에 대한 주의 심판은 그들의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는 단순히 지나가는 순례 길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회중의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스무 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이 쓰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구 조사에서 스무 살이 넘어 계수된 자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광야의 인구 조사에 계수된 모든 자들이(민1:3)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수행해야 할 당사자들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때 10대의 아이들은 징병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들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징병 대상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게 불평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30).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가운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계수된 자가 모두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었으니(민1:46) 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고령자가 되는 것입니까?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이 더 있습니다. 레위 지파, 여자들, 아이들, 20세 이하의 사람들, 불평하지 않고 주를 온전히 따른 자들은 죽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지파로서 죽지 않았습니다(민34:17). 주님께서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 주신 70명의 장로들 역시 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함께 짐을 졌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즉 광야에서 사체가 되어 쓰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70인의 장로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고 더 오래 산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수24:31). 출애굽부터 광야의 40년, 가나안 정복전쟁까지 모든 일을 아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로서 광야의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삿2:7). 편의상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들은 주의 모든 행적을 다 본 자들로 후대에 증언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고, 제외되려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